

여야 연일 강경대응...정국 경색 조짐

“정권 흔들기 중단” vs “국정조사 수용요구” 의원특권 내려놓기 등 민생법안 이달처리

여야가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 연일 강경 대응으로 맞서면서 정국이 경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문제는 이견을 드러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백에 육박하고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황 대표는 “시기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으니 당내에서 논의를 계속 하겠다”고 밝혀 두 대표의 입장은 회동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국정조사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선 의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헌정 문란 사건을 제대로 심판해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항상 이랬으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조찬 회동에서 국밥을 서로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국정원 사건 해법의 돌파구로 기대됐던 여야 대표 회동도 양당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여야간 긴장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황·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소재 한 음식점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이 같은 기존 합의사항을 확인했다고 새누리당 유일호·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국가정보원

박대통령 “벤처, 창조경제 주역될 것” 페이스북 창업자 겸 CEO 저커버그 면담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세계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를 접견했다.

“페이스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잘 알려져 있고, 우리도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 성공하는 벤처를 만드는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우수한 벤처기업들과 협력관계를 만들기를 바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소속 청년위원장에 남민우 임명 박칼린·장미란·카톡 대표 이제범 등 위촉

대통령 소속 청년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남민우(51) 다산네트워크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청년위원으로는 한국예술원 교수인 박칼린씨와 전 여대선수인 장미란씨가 위촉됐다. 또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카카오톡의 이제범 공동대표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도 청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신개념 패밀리 레스토랑 **델리스보**

고기뷔페&샐러드바&회초밥, 롤 무한리필!!

“신선한 재료와 친절한 서비스, 정성 가득한 맛있는 음식으로 고객 여러분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돌잔치 전문	피로연, 돌, 백일, 환갑, 칠순, 각종모임 환영합니다. 무한리필/주차장완비/300석 규모의 대연회장 (50명, 100명 연회석 완비)
고기류	LA갈비/생등심/토시살/살치살/갈비살/차돌박이/우삼겹/항정살/삼겹살/대패삼겹/와인삼겹/돼지갈비/떡갈비/온양불고기/양념갈비/쭈꾸미
샐러드	다양한 신선한 샐러드와 상큼한 소스
초밥류	참치초밥/연어초밥/새우초밥/알초밥/보리멸초밥/한치초밥/유부초밥/롤

김효석 내년 지방선거 출마 준비

25일 광주·전남 미래구상네트워크 출범

그는 “광주·전남이 직면한 새로운 10년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준비할 것인가, 또 어떤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이 같은 작업을 시작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광주·전남미래구상 네트워크’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어 “현직인 서울 강서을지구당 위원장직은 지난 전당대회전 지구당 개편이 이루어질 때 위원장을 그만두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조만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재위 ‘전두환 비자금’ 집중 거론

김덕중 국세청장에 은닉재산 환수 의지 추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8일 전체 회의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 문제가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이 김덕중 국세청장을 상대로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요구했고, 여기에 일부 여당 의원도 가세했다.

김·부터 확실하게 추정해야만 영(승)이 설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전두환 비자금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극에 달했다”면서 “국세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비자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도 “탈세 혐의가 있다고 분석되면 개별 주제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통상업무”라고 밝혀 전 전 대통령 부자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배기운, SOC 민간투자자법 개정안 발의

민간재안사업의 적격성 심사를 국가가 실시함에 따라 예산낭비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민간투자사업 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적격성 조사의 정부 책임 강화를

의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재안사업으로 이원화돼 있으며 이 중 민간재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시행하고 있으나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책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 평일런치 (오전 11:30~오후 3:00) 12,000원
- ▶ 평일디너 (오후 5:00~오후 10:00) 17,000원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초밥, 샐러드, 케익, 각종요리 등 100종류의 음식이 가득

훈제요리·각종 바베큐·조각케익 등 맛있고 신선한 후식

광주 광산구 쌍암동 657-5 (2층)
TEL.062)972-3655